

CES 핫플된 삼성 부스... 정·재계 인사 '혁신 삼매경'

박원순 시장 등 각계각층 인사 방문 경쟁사 수장인 LGD 정호영도 찾아 삼성 경영진과 악수하며 '화기애애' 박용만, 윤부근 부회장과 부스투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 개막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박원순 서울 시장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는 등 CES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오전 9시 20분경부터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내 삼성전자 부스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중희 삼성전자 사장이 나란히 서서 예정된 '손님'들을 기다렸다.

삼성전자는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21평)로 부스를 꾸몄다. 삼성을 찾은 인사들은 VIP 투어를 통해 컴패니언 로봇 '볼리', 사물인터넷(IoT) 환경, 가정용 식물재배기 등을 관람하고 일반 부스 공간으로 이동해 다양한 TV 제품과 가전 제품을 살펴봤다.

오전 9시 50분경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삼성전자 부스에 입장했다.

정 사장은 윤부근 부회장, 한중희 사



박원순 서울시장(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의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2020'가 열린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에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왼쪽)과 한중희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장을 비롯해 TV 관련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정 사장은 LG디스플레이 수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경영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장은 만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 사장이) 와주셔서 감사하죠"라며 "한상범 전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자주 만났었는데 정 사장은 처음 만나다"고 말했다.

잠시 후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

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다. 두산 부스 방문 후 삼성 부스로 온 박 회장은 윤 부회장과 함께 부스 투어에 나섰다.

투어를 마친 후 박 회장은 '인상 깊었던 제품'을 묻는 질문에 "미래 사업화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디스플레이나 모바일은 삼성이 세계 톱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럽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이 좀 그럽다"며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같은 분야만 봐도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규제의 틀 때문에 발전 못한 것 아닌가"라며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보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시 20분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왔다. 박 시장이 "부스에 어떤 제품들이 있냐"고 묻자 한 사장은 "마이크로 LED 등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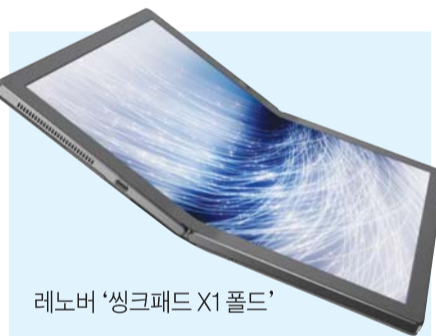
고 설명했다.

11시경에는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이 등장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로봇 '볼리'에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날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박정호 SKT 사장, 하현희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스마트폰... 노트북... 웨어러블... 글로벌 '휘어' 잡는다



레노버 '씽크패드 X1 폴드'



LG디스플레이가 공개한 폴더블 노트북.



로올 '플렉스파이'.



TCL이 콘셉트 버전으로 전시한 손목 등에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클램셀 폴더블 폰. 작동되지 않는 모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휘어지고 접히는 디스플레이 향연 삼성 '갤럭시 폴드' 관람객들 감탄

레노버,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 TCL '클램셀' 형태 모형으로 전시 中 화웨이·로올도 폴더블 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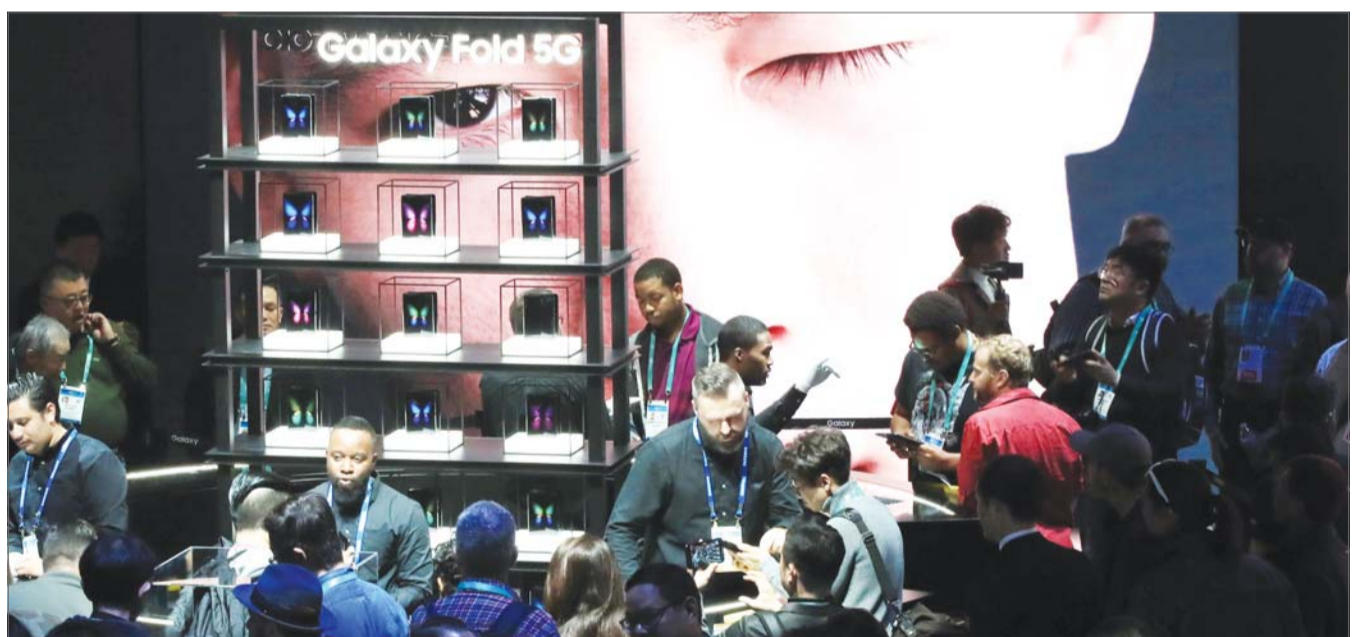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 스크린을 접을 수 있는 제품이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폴더블 스마트폰과 더불어 폴더블 노트북도 새롭게 공개됐다.

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를 선보였던 중국 스타트업 로올은 이번에도 같은 제품을 전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출시돼 시간이 꽤 흐른 만큼 'CES 2019'에서 공개했을 때만큼의 열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폴더블 폰 체험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화면이 깔끔하게 접힐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폰과 달리 로올을 화면을 접을 때의 느낌이 다소 뻣뻣한 편이며, 반으로 접은 상태의 모습도 화면 사이 공백이 큰 모습이다. 완전히 반으로 접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찾아볼 수 없다. 7.8인치 크기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화면이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로올 관계자는 "아마도 곧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갤럭시 폴드'에 쏠린 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2020'가 개막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에서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갤럭시 폴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전시장 관계자 8명이 관람객들이 갤럭시 폴드를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체험을 하는 관람객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갤럭시 폴드는 갤럭시 폴드 화면은 펼쳤을 때 7.3인치, 접으면 4.6인치다. 접고 펼 때의 느낌은 부드러웠다. 접은 상태에서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펼치면 '훅'하고 빠르게 펼쳐진다. 양쪽에 자석이 탑재돼 닫을 때는 '찰칵'하는 느낌으로 닫힌다. 갤럭시 폴드는 책처럼 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다.

화웨이도 이번 CES에서 자사의 첫 폴더블 폰 '메이트 X'의 실물을 전시했다. 전시장에는 체험용 폴더블 폰이 3대

에 그쳐 체험을 위해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펼쳐진 상태에서 메이트 X를 받아든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메이트 X는 화면을 펼치면 8인치이고, 접으면 전면 6.6인치, 후면 6.38인치다.

아웃폴딩 방식으로 화면을 반으로 접을 때는 뻣뻣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메이트 X를 만져보던 한 관람객은 화면이 접히는 부분을 가리키며 "울퉁퉁(bumpy)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화면을 펼치려면 화면 정면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측면에 위치한 갤럭시 폴드 보다 펼칠 때의 번거로움이 조금 느껴졌다.

TCL은 콘셉트 버전의 폴더블 폰을 전시했다.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모형으로, TCL 관계는 "이런 느낌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면을 수직으로 접는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 폰과 손목에 스크린을 감싸는 듯한 제품도 전시했지만 이 역시 모형에 불과했다.

폴더블 노트북도 등장했다. 레노버는 세계 최초의 폴더블 PC인 '씽크패드 X1 폴드'를 전시했다. 경량 합금과 탄소 섬유로 제작됐으며, 가죽 폴리우레탄 코팅이 들어 있다. 13.3인치 접이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으로 무게는 1kg를 넘지 않는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을 완전히 펼쳐서 사용하거나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도 비공개 부스에서 폴더블 노트북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